

04

토종종자 보전을 위한 한일 워크숍

토종이 자란다

토종이 자란다 김혜영

토종이 자란다

토종 씨앗 나눔 활동에 대하여

페이스 북의 "토종이 자란다" 가 있기 까지

2011년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에서 11농가의 모임 : 윤주리 이영동 농부의 토종 작물 재배 경험을 듣고 씨앗 나눔.

2012년 모임의 이름을 [남도토종종자연구모임]으로 정하고 2012년 12월 에 다시 나눔.

2012년 12월22일 [남도토종종자연구모임]의 주최로 용산면 복지회관에서 씨앗 나눔 행사.

"우리가 꿈꾸는 마을 황새울" 이라는 이름으로 용산초등학교 학생들과 1년간 생물다양성 논농사 실천,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결과를 함께 보고 전시함. (장흥교육희망연대 협조)

2013년 12월14일 [남도토종종자연구모임] 씨앗나눔 행사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지원으로 " 보리, 유채를 이용한 토종 콩 농법 " 의 실천사례발표 및 장흥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ESC 학생들의 토종 텃밭 경작 체험 및 GMO와 토종씨앗을 주제로 보고서 발표.

2015년 2월 7일 [남도토종자원연구모임]으로 이름을 바꾸고 씨앗 나눔 행사.

“토종이 자란다 ” 그룹 개설 서울에서 진행한 씨앗 나눔.

2014년 10월 페이스 북에 “토종이 자란다 ” 라는 그룹을 만들어

토종 작물들의 성장 모습과 사진들을 자료로 올리면서 알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씨앗 나눔 행사를 개최하게 됨.

2015년 3월 대학로 마르쉐@ 혜화 농부 시장과 협의하여 씨앗 나눔 진행

(3월~5월 사이 파종할 토종씨앗 31종)

2015년 4월 서울시도시농업운영위원회의 “토종종자축제 ” 에 참여 노들 텃밭에서 토종씨앗 나눔

2015년 4월 마르쉐@명동 장터에서 “토종 씨앗 한 마당” 참여, 토종 먹을 거리와 씨앗 전시

2015년 5월 대학로 마르쉐@ 혜화 농부시장에서 씨앗 나눔

(5월~ 7월 사이 파종할 토종씨앗 73종)

2015년 7월 대학로 마르쉐@ 혜화 농부시장에서 씨앗 나눔

(7월 이후 파종할 씨앗 32종)

2016년 3월 13일 3월 씨앗 나눔 준비 중

(3월~5월 파종할 씨앗, 2015년 나눔한 씨앗 중

채종되어 돌아오는 씨앗들을 중심으로)

2012년 12월 22일 남도토종씨앗 나눔



2012년 씨앗 나눔 이야기



2013.12. 남도토종자원연구모임 씨앗 나눔.



2015년 2월 7일 남도토종자원연구모임 씨앗나눔



2015년 2월 7일 남도토종자원연구모임 씨앗나눔



2015년 2월 7일 남도토종자원연구모임의 씨앗나눔



2014.2 마르쉐@ 혜화 도시농부 시장에서 토종 콩과 밀가루, 된장등 소개



2015 토종이 자란다! 씨앗 나눔

토종 해바라기씨를 씨앗을 만드시게 해서 감사하며 지킵니다.

토종이 (도감)
2014 장흥
이명동

토종 인들굴
수원
이복자

토종 인들굴
수원
이복자

오크다
북어지산
강전도양

5월 분양
보고장은
국립
씨앗은행

씨앗 나눔

씨앗은 약속!

*여왕씨는 전화를 걸어만 적으시면 됩니다.
제배하는 중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2015년 3월, 4월, 5월 ,마르쉐@혜화 농부장터에서 씨앗 나눔 및 전시를 위한 준비



2015년 7월 마르쉐@혜화 장터에서 씨앗나눔



2015년 10월 11일 마르쉐@혜화 "토종이 자란다" 추수 감사 전시 및 음식나누기



2015년 10월 11일 마르쉐@혜화 "토종이 자란다" 추수 감사 전시 및 음식나누기



2015년 10월11일 마르쉐@혜화 "토종이 자란다" 추수 감사 전시 및 음식나누기



토종 씨앗 나눔을 돌아보며,

처음 시작한 곳이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의 씨앗 나눔

1. 전업농부 들은 토종씨앗에 대한 흥미가 많지 않음 ;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큼
2. 여성 농업인들은 관심을 보이고 필요한 종자는 가져다 심어 보고자 함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그 맛과 향을 다시 보고 싶어함. 특히 사라진 콩류, 채소류에 관심이 많음. (유월동부, 박, 단수수)
3. 주로 귀농인들이 토종씨앗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결정적으로 작물을 가꾼다거나, 흙을 가꾼다거나 하는
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함으로 해서 채종에 실패. 3여년 쯤 지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
4. 지속적으로 나눔회를 하면서 점점 더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음. (장흥에서 시작 => 전남 뿐 아니라 경남, 충청도에서도 찾아 옴)
농지가 여유가 있어 다양한 전통 농법들과 토종작물 재배의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었음 (보리, 유채를 피복작물로 활용하는 토종콩 농법 등)
5. 씨앗에 대한 농민의 자주적 인식을 되살려야 함.
화학농법이 아닌 생태적 농법을 이용하면 병충해, 열악한 기후 조건 등에 대해 토종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음.
토종씨앗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토종 작물들을 전통적인 농법인 사이짓기, 섞어 짓기로 재배할 경우, 단작의 피해를 없앨 수 있고
건강한 땅과 먹을 거리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란걸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텃밭에 퍼머컬처 원리를 활용)

도시에서의 토종 씨앗 나눔

- 도시근교의 농부와 도시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종 씨앗을 나눔하는 경우

1. 경제적 이득 보다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 부담없이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강점
2. 역시 귀농인들과 같이 경작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으나 오히려 적은 종류의 작물들을 세밀한 관찰로 이해하고 돌보는 모습도 있음. (정확한 파종 시기, 작물의 성장, 채종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3. 현재 도시농부들에게도 토종씨앗 보다는 농자재상들의 개량종 씨앗, 모종들이 훨씬 널리 퍼져있어서 새로이 알리고 채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전달, 교류가 필요함. (페이스 북, 손전화 문자 등을 최대한 활용)
4. 씨앗의 속성은 "퍼뜨려지는 것"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본래의 생명력을 지닌 토종 씨앗을 널리 퍼뜨려야 함을 인식.
5. 방과후 활동,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학교 텃밭에서는 토종씨앗으로 작물 배치를 재구성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토종 씨앗 나눔에 담고 있는 철학

1. 씨앗은 곧 생명이므로 거래를 통해 사고 팔지 않는다.

토종 씨앗과 자원들의 소중함은 "생명"의 근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단 한가지의 작물을 키운다 해도 생명을 보듬고 정성을 기울이는 심성을 길러감으로써 생명존중을 실천하는데 깊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 (불임종자, GMO vs. 자연교배, 자연육종)

2. 토종씨앗은 수 천년 이어오며 간직한 생명력과 음식 문화가 담겨 있으므로

단순한 먹을 거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과 고유한 문화 이어가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인류 삶의 가치를 되짚어 본다. (자본주의, 경쟁주의 vs. 생명보존 다양성의 가치)

- 3 무한한 듯 가속화 되고 있는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를 지속 가능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지금의 농업, 농촌의 유일한 답이라고 믿음. (자본 vs. 행복, 자금심)